

지역과 함께,
세계로 대전환

*Together with the Region,
A Major Shift Toward the Global Stage*

기독교 명문대학인 한남대학교는
지역을 이끌고 세계로 뻗어나갈
창의적인 인재를 배출합니다.

한남대학교 학생들은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전할것입니다.

HANNAM DREAM



한남대학교 소식지

2025 Summer Vol. 41



지역과 함께,
세계로 대전환

Together with the Region,
A Major Shift Toward
the Global Stage

한남대학교 소식지

2025 Summer • Vol. 41



한남대 학생들의
꿈과 열정을 키우는
메이커스페이스

발행일 2025년 6월
발행처 한남대학교
발행인 이승철
편집인 장수익
글·사진 고상범, 김민영, 장효진
제작처 한남대학교 입학홍보처 홍보팀
www.hannam.ac.kr

이 책의 저작권은 한남대학교에 있습니다.
이 책에 수록된 글과 사진을 포함한 모든 내용은
저작권자와의 협의 없이 무단으로 복제 또는 전재될 수 없습니다.

STORY 1
한남대 핫이슈

- 04 마지막 글로벌대학30 도전장,
한남대학교 예비지정 선정
- 06 글로벌대학30 계획서
무엇을 담고 있나?
- 09 대전 8개 대학,
한남대의 글로벌대학30 비전에 협력
- 10 글로벌대학30 본지정을 위한
이승철 총장 interview
- 12 2025 새롭게 출발하는
RISE 사업

STORY 2
한남대 사람들

- 14 한남대 70주년 헤리티지 영상,
역대급 동문 발자취 엮는다
- 16 빈 강의실 찾기 웹서비스
‘공강룸’ 개발한 김선호 학생
- 18 기업 맞춤형 SNS 자동 콘텐츠 생성기업
(주)이더라 배운혁 학생
- 20 ‘Dreams of Chemistry’ 학과
홍보곡 작곡한 이성광 교수
- 21 새로남교회
오정호 목사 대학장 수여

STORY 3
한남대 소식

- 22 한남대 계열별 자유전공학부
2026년 파격적 학제 개편
- 24 한남대 생명시스템과학과 이진아 교수
2025KSMBB 여성 생명과학자상 수상
- 25 한남대 축구부 출신 4명,
U20·U22 국가대표 선발
- 26 한남대 디자인팩토리 영국 Stylideas社 참여
글로벌캡스톤 디자인서 ‘우승’
- 27 한남대 중앙박물관 소장유물
‘평양성탈환도’ 문화적 가치 알린다
- 28 국내대학 첫 대규모
‘Wi-Fi 7’ 구축
- 29 한남대 베트남 유학생
성경공부 최초 시행
- 30 졸업생 학부모의
‘감동의 선물’
- 31 발전기금 기탁 현황



마지막
글로벌대학30 도전장,
한남대학교 예비지정 선정

Glocal 30

글로벌대학30 사업의 근본 취지에 부합했다는 평가를 받은 한남대의 전략은 대전지역 사립대학 가운데 유일하게 예비지정 대학으로 선정되었다.

han

University

한남대는 지역 정주형 스타트업 인재양성과 글로벌 스타트업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하는 'K-스타트업밸리' 대학 모델을 단독으로 제출했다.



위: 캠퍼스혁신파크 경인, 한남대 상거점 라트비아, 다목적 공용 프로젝트

이번 예비지정은 글로벌대학30 사업의 마지막 10개 대학을 선발하는 마지막 관문이어서 전국 신청 가능대학 160교 중 절반이 넘는 81교(51%)가 신청했으며, 이 가운데 18개교를 선정했다.

한남대는 우수한 창업 인프라와 특화된 창업 교육역량을 앞세워 지역 정주형 스타트업 인재양성과 글로벌 스타트업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하는 'K-스타트업밸리' 대학 모델을 단독으로 제출했다.

글로벌대학30 사업의 근본 취지에 부합했다는 평가를 받은 한남대의 전략은 대전지역 사립대학 가운데 유일하게 예비지정 대학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한남대는 대학과 중앙정부, 공기업, 지자체가 5년간 4,843억 원을 공동 투자해 글로벌 창업연합대학 조성, 지역전략산업육성 협업 생태계 조성 등 세계적인 창업대학과 창업 도시로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한남대는 전국 최대 창업보육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2023년 창업중심대학 주관기관 선정, 대전과학산업진흥원 · 대덕경제재단, 88개 민간기업(예정) 및 지원기관 등이 입주해 있는 캠퍼스 혁신파크 개소 등 창업분야 인프라를 충실히 갖추고 있다.

또 국내 최초 영어전용 린트 글로벌 컬리지를 신설했고, 지역대학 최초 디자인팩토리 글로벌 네트워크(DFGN) 가입 및 운영, 다국적 기업 프로메가 바이오교육원 설립, 우주항공산학융합원 유치 등 글로벌 분야 추진 역량을 갖추고 있다.



한남대는 혁신전략으로 ▲지역중심 · 글로벌지향 교육시스템 대전환(학생선택-글로벌 수요 중심 인재 파이프라인, 지역고등 · 창업 · 평생 통합 교육 체계) ▲글로벌 창업 생태계 조성(한남 K-스타트업 밸리 조성, 글로벌 창업연합대학 체제 구축, 글로벌 창업 전주기 성장지원 시스템) ▲지역 정주형 산업 · 인력 육성 허브(지역정주형 산업인력 발굴-육성 파이프라인 체계 구축, 지역전략산업 육성 협업 생태계 구축) ▲지속가능 거버넌스, 성과관리 및 재정투자 혁신(한남 글로벌 Initiative 거버넌스 혁신, 개방형 시기반 성과관리 플랫폼 구축, 지속 가능 혁신 성장을 위한 재정구조 혁신) 등 4대 전략을 제시했다.

한남대 이승철 총장은 “한남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까지 2년 연속 예비지정 대학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라며 “지난해 보다 RISE 체계 시행에 따른 혁신전략과 과제를 고도화했으며, 캠퍼스혁신파크조성사업 2단계와 연계한 창업투자 계획 구체화, 글로벌창업연합대학 참여대학 확대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지역과 우리 대학이 힘을 모아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남대학교 전경

글로벌대학30 계획서, 무엇을 담고 있나?

한남대 글로벌대학30 사업의 키워드는
‘지역정주형 스타트업 인재양성 평생교육기관 도약’과
‘글로벌 스타트업 생태계 조성’이다.

이는 ‘지역과 함께, 세계로 대전환’이라는
슬로건에 고스란히 담겨있으며, 글로벌
대학30 사업의 근본 목적과도 정확하게
일치한다.

한남대는 4대 혁신전략과 10대 혁신과
제를 제시했으며, 대학과 중앙정부, 공기업,
지자체가 5년간 4843억원 공동투자를
하면 4대 전략을 통해 세계적 창업대학,
세계적 창업도시라는 성과를 창출하겠다는
목표다.

성과 창출 목표는 창업육성 기업가치 4.7
조원, 지역 내 고용률 63.2%, 일자리창출
1만개, 아기 유니콘육성 20개, 자체수익
창출 235억원 등이다.

한남대는 창업분야에서 국내 최초 대덕
연구단지 내 바이오 특화캠퍼스를 조성해
운영했으며 대학창업지수 전국 2위, 국내
최대규모의 창업보육센터 운영(고용창출
2728명, 매출 2912억원), 한남대 교원창
업기업 알테오젠 배출, 한남대 지원기업
시에라베이스 CES2025 최고 혁신상 수
상, 전국최초 캠퍼스혁신파크 준공(2024
년), 충청권 유일 창업중심대학 선정 등
창업분야 역량을 두루 갖추고 있다.

글로벌분야는 국내 최초 영어전용 린트
글로벌칼리지를 신설하고 지역대학 최초
로 디자인팩토리 글로벌 네트워크 가입
및 운영, 국내 최초 다국적 기업 프로메가
바이오교육원 설립, 우주항공산학융합원
부지 공사완료 등의 추진 역량을 갖췄다.

혁신전략 1

지역중심 글로벌지향 교육시스템 대전환

한남대는 지역중심의 글로벌지향 교육시스템 전
환을 위한 혁신과제로 학생선택-글로벌수요 중
심 인재 파이프라인과 지역고등·창업(직업)·평
생통합 교육 체계라는 2개의 혁신체계를 내세
웠다.

우선 학생선택-글로벌수요 중심 인재 파이프라
인 구축을 위해 교육·연구·창업 일체형 ‘RISE’
인재양성모델을 제시했다. 전체 학생들이 ‘연구
·창업’ 교과계열의 마이크로디그리를 이수해
야 하며 한국형 아우스빌동, 미네르바/몬드라곤
교육모델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학생 개
인별 맞춤형(인공지능 기반) 1:1 밀착지도를 강
화하고 역량·활동 중심의 학생 개별 맞춤 포트
폴리오를 구현하게 된다.

지역의 통합 교육체계를 위한 개방형학점제와 대
학공공자원화센터 운영을 통한 글로벌 혁신교육
타운이 조성된다.

초등 창의발명교실을 비롯한 청소년 CEO캠프,
현장실무교육, 재직자를 위한 창업클래스, 중년
들을 위한 창업컨설팅 프로그램을 운영해 지역
민들의 대학의 자원을 공유하는 생태계를 구축
하겠다는 목표다.

혁신전략 2

글로벌 혁신전략 (글로벌 창업 생태계 조성)

세계 수준의 로컬-글로벌 연계 창업 특화 혁신
인프라를 조성하고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한남
대는 이를 위해 한남 K-스타트업 밸리 조성(글
로벌 창업특구)과 글로벌 창업 연합대학 체제
구축, 글로벌 창업 전주기 성장지원 시스템 등
3개 혁신과제를 제시했다.

한남대는 ‘한남 K-스타트업 밸리 조성’을 위해
대전 5개 권역에 창업타운을 조성하고, 지역대
학과 연계해 공동창업거버넌스를 구축하게 된
다. 이를 통한 한남대 대덕밸리캠퍼스에 바이
오클러스터를 조성하게 되며 대전바이오창업
원과 한남창업집적타운 등 설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밖에 한남대 캠퍼스혁신파크를 바탕으
로 도시첨단산업단지, 연구개발특구, 산학연협
력단지 특례를 활용해 우주항공산학융합원, 물
산업산학협력창업센터, 국방반도체생산연구센
터, 청년창업주거단지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한남대가 2년 전부터 추진해 온 글로벌 창업 연
합대학은 12개국 19개 대학이 참여하며 어느
정도 밀그림이 그려진 상태다. 글로벌 창업연
합대학을 신설해 2026년 최초 모집을 시작하
며 연간 40명 규모로 5개국 이상을 순회하게
된다. 이는 공동교육과정과 공동인증서, 학위
등을 받게 되며 핀란드와 영국에서 글로벌 혁신
창업 교육을 받을 수 있다. 학생들은 소속대학
에 입학생 전공기초 및 핵심교양 과정을 이수하
고 해외연합대학(최대 5개국)을 순회하며 교육
과정을 이수하게 된다. 마지막 8학기에는 한남
대학교가 총괄 주관해 캡스톤프로젝트와 디자
인팩토리 기반 심화교육과정을 교육한다.

글로벌 다학제 융복합 창업 교육과 창업 전주기
성장지원 체계 모델도 구축했다.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창업 지원 체계를 갖춘
글로벌 창업허브를 운영한다.

한남대학교 메이커스페이스



혁신전략 3

지역 정주형 산업 · 인력
육성 허브

지역혁신 중심의 대학지원체계(RISE) 기반 지역전략산업과 지역인재의 정착 환경 구축을 목표로 지역정주형 산업인력 발굴·육성 파이프라인 체계 구축과 지역전략산업 육성 협업 생태계 구축을 혁신과제로 내세웠다.

한남대는 PROUD 인재양성시스템(대전형 아우스빌등)을 통한 정주형 산업인력을 체계적으로 발굴하고 육성할 예정이다. 이 시스템은 현장실무와 산업역량, 지역인재 수요조사를 통한 강좌와 교육과정을 설계하고 교육환경을 개선해 현장 미래형 교육환경과 산업직무 맞춤형 모듈 교육을 실시하는 독창적 특화교육을 하게되며 기업과 대학의 협동프로젝트, 현장실습, 일학습병행 등 실천 교육을 하게 된다. 이는 지역인재의 수요와 공급 불균형 해소를 위한 지역기업과의 계약정원제, 계약학과 운영 등 지역산업계가 참여하는 교육과정 검증 프로그램을 운영해 지역 정주를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지원체계도 강화해 유학생 맞춤형 취창업 프로그램을 구축하고, 외국인 유학생들의 지역정착을 지원하게 된다.

지역전략산업 성장지원센터, 글로벌기술혁신센터 등을 통한 전방위 지원과 지역기업 기술제조 혁신 지원체계 구축, 기업성장 연구개발을 위한 밸류체인 구축 등 지산학연 협업 생태계 구축에 나설 예정이다.

한남대 대덕밸리캠퍼스 전경



한남대학교 캠퍼스혁신파크 야경

혁신전략 4

지속가능 거버넌스,
성과관리 및 재정투자 혁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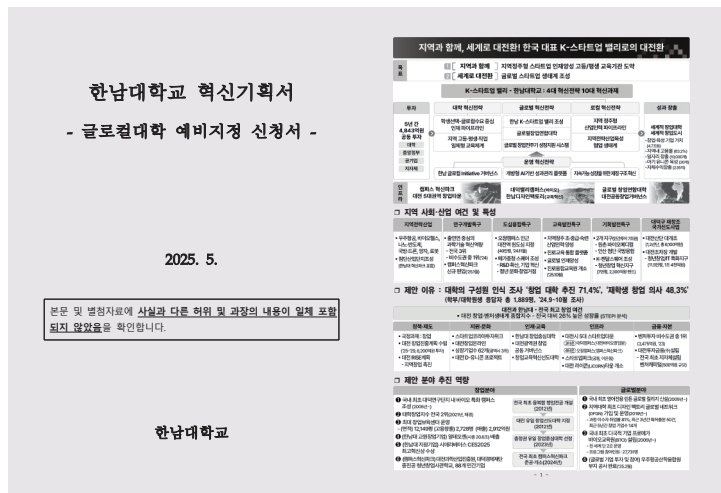
한남대는 글로벌 거버넌스 · 성과관리 체계의 조기 정착을 통한 신속한 추진과 우수한 혁신 성과 창출을 위한 글로벌대학 운영 총괄 의사결정기구를 운영하는 한편 개방형 SI기반 성과관리 플랫폼 구축, 지속가능 혁신 성장을 위한 재정 구조 혁신에 나선다.

글로벌 대학 운영 총괄 의사결정 기구를 운영해 총장과 광역자체단체장 공동의 장제를 통한 신속한 의사결정을 하며 갈등 요소를 사전에 통제하고 예산투입을 시행할 계획이다. 글로벌 평가감사팀 운영을 통한 사업운영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글로벌IR센터, 대전공동창업거버넌스 중심의 대내외적 혁신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지역 중심의 성과관리와 지역/글로벌 데이터, 통계 분석 결과를 공공 자원화 할 수 있는 IR센터도 설립한다. SI기반의 성과관리 플랫폼을 구축해 국가는 주력산업 성장기반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고 지역은 지역일체형 자생적 혁신성장 생태계 조성, 대학은 지역일체형 대학으로 교육체계를 개편하는 등의 성과를 낼 수 있다.

대학과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업이 협력 투자를 통해 6년간 최대 약 4843억원을 투입하며, 지속 가능한 창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자체 수익 창출 모델을 운영하고 한남홀딩스를 설립할 예정이다.

한남대학교 예비지정신청서(표지, 내지, 본문)

대전 8개 대학,
한남대의 글로벌대학30 비전에 협력

‘대전권 공동 창업 대학 연합체 구축’ 협약 체결



대전권 8개 대학이 한남대학교가 추진하는 글로벌대학30 비전 ‘대전권 공동 창업대학 연합체’ 구축을 위해 힘을 모은다.

지역대학들이 경쟁보다는 상호 협력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을 보태겠다는 결단이 눈에 띄는 행보다. 6월 23일 한남대를 비롯해 대덕대, 대전과학기술대, 대전대, 목원대, 배재대, 충남대, 한국침례신학대 등 8개 대학 총장은 ‘대전권 공동 창업 대학 연합체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서’에 서명했다.

협약서에 따르면, 8개 대학은 대전지역의 지속 가능한 창업 생태계 조성과 대한민국 최고 수준의 창업 도시로의 도약을 위해 각 대학의 역량과 자원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인재양성, 창업지원 제반 업무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창업 대학 연합체’는 한남대가 추진 중인 글로벌대학 30 사업의 비전인 ‘대전: 한국 대표 K-스타트업 밸리로의 대전환’을 실현하기 위한 일환이다.

이번 협약으로 각 대학은 우수 창업자 양성을 위한 SI 및 디지털 기반의 공동창업 교육과정과 공동 연구 프

로그램을 개발, 운영을 통한 인재를 발굴 · 양성하는 한편 창업 및 기업지원을 위한 인적 · 물적 인프라를 공유하고 재원확보, 투자 연계 활동에 공동으로 나서기로 했다.

또 지역 전략산업에 기반한 맞춤형 창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 학생 · 교원 · 지역민 · 재직자 등을 위한 창업 · 창직 교육, 멘토링, 인턴십, 모의 창업 훈련 등 창업 전주기 프로그램 운영, 글로벌창업연합대학과 연계한 창업 아이디어 경진대회, 스타트업 박람회, IR/피칭 등 글로벌 진출을 위한 공동행사 기획 등을 진행한다. 이밖에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과 국제교류 프로그램 공동추진, 창업수요발굴, 성과창출, 정책개발 등을 위한 공동 플랫폼과 거버넌스 구축, 지역 창업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공동사업 추진 등에 나선다.

한남대 이승철 총장은 “이번 협약은 대전권 공동 창업 대학 연합체를 구축하고 창업 관련 유관기관까지 포괄하는 창업공동체 조성을 위한 전초작업으로, 대전을 세계적 수준의 한국 대표 창업도시로 조성하기 위한 노력”이라며 “경제 관계가 아닌 지역 발전을 위해 힘을 모아준 지역대학들의 결단에 감사하며 전국 최초의 모델을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Interview

Q & A

글로벌대학30 본지정을 위한 이승철 총장 포부

“기업이 성장하는
산업단지 일체형
캠퍼스,
가장 경쟁력 있는
대학모델을
추구합니다.”



글로벌대학30 본지정을 목표로 하고있는 한남대학교 방향의 가장 큰 밑그림은 이승철 총장 취임 직후 그려졌다.

이 총장은 지난 2024년 취임 직후 한남대의 새 슬로건을 ‘지역과 함께 세계로 대전환’을 내걸었다. 지역산업과 함께 성장하고 글로벌한 캠퍼스를 만드는 대변혁을 만들어 내겠다는 취지다. 이 총장의 밑그림은 정부가 추진하는 글로벌사업과 취지와 목적이 일치한다. 이 총장이 구상하는 글로벌대학30 사업의 미래와 방향, 사업 선정을 위한 노력을 들어본다.

Interview

Q

**글로벌대학30 사업이 올해 마지막 선정을 앞두고 있다.
어떤 마음가짐을 갖고 있으며
글로벌대학30 사업 선정 당위성은 무엇인가?**

A

올해는 글로벌 사업 대학을 선정하는 마지막 해다. 우리대학은 지난해 글로벌 대학에 예비지정되었지만, 본지정까지 이르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대학의 혁신 노력과 방향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인정받는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한다. 우리 대학은 지역창업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 왔고, 대학과 구성원의 역량도 충분히 성숙 됐다. 올해는 특히 지역과의 협업 노력을 더욱 강화하였고, 대학 자체 혁신노력도 지속해 왔다.

Q

**작년에 이어 올해도
예비지정 선정이라는 성과를 거두었다.
지난해보다 진전된 내용은 무엇인가?**

A

작년 본지정 탈락 이후에, 대학은 자체혁신 노력을 기울여왔다. 내부 구성원, 외부 전문가, 협업기관, 지자체 등과 함께 혁신기획서를 자체적으로 진단하였고, 개선점을 도출했다. 대학의 자체혁신을 강화하기 위하여 무전공제를 최소 약 27% 도입하였고, 교무위원회를 외부에 개방하는 등 대학의 변화를 보여주기 위한 노력을 했다. 더불어 전국 유일의 한남대학교 캠퍼스 혁신파크를 준공하고, 대전과학산업진흥원 등을 학내에 유치하는 등 지역과 연계노력을 강화하였다. 지역대학과의 협업을 위한 상생적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노력도 기울였다.

Q

**구체적인 계획 실천을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일 예정인가?**

A

글로벌 대학은 대학과 지역의 혁신을 동시에 추진하는 매우 중요한 사업이다. 대학과 지역의 동반 혁신을 위하여 글로벌 이니셔티브라는 대학-지자체 공동의 거버넌스를 구축할 예정이다. 대학은 이미 교무위원회를 지역에 개방하는 등 외부와 공동 협력을 위한 준비를 갖춰가고 있으며, 글로벌 이니셔티브는 대전광역시장이 공동 위원장으로 참여하는 등 대학과 지역 간 상호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하는 추진체계를 구체적으로 갖추고자 한다.

Q

**무엇보다 지역사회와의 연계가 중요하다는 판단이 크다.
지역의 지자체, 연구소, 관련기업 등 지역사회와
어떤 연계를 계획하고 있고, 추구하는 목표는 무엇인가?**

A

한남대학교는 글로벌 이니셔티브라는 거버넌스를 통해 지자체, 지역대학, 지역 연구소 등 다양한 혁신기관의 글로벌 사업 의사결정 참여를 보장하고자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지역 혁신을 위한 공동의 목표에 지역 전체가 참여하는 신뢰적 협업 체계를 갖추고자 한다. 특히 이니셔티브는 총괄 조직과 실행 조직으로 전문화되어, 지역사회와의 연계가 입체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준비 중에 있다. 결과적으로 성공적인 글로벌 사업을 통해서 지역과 기업이 성장하고, 성장한 인재와 기업은 지역에 정주하는 매력적인 우리 지역을 만들게 될 것이다.

Q

**글로벌대학30 본지정 후 한남대의
변화된 미래를 구체적으로 그려본다면?**

A

글로벌대학30 사업에 본지정되게 되면, 한남대학교는 지역 산업의 인력 공급자로서 한남대학교가 아닌, 지역의 새로운 창업인을 양성하는 기업 공급자로서 성장하게 될 것이다. 모든 졸업생이 창업인이 될 수는 없지만, 어디서든 창업자 역할로 성장하는 핵심인재로 키워내는 것이 우리 대학의 목표이다. 더불어 한남대학교는 캠퍼스 혁신파크를 통해 기업이 성장하는 산업단지 일체형 캠퍼스로서 가장 경쟁력 있는 대학 모델이 될 것이다.

Q

**글로벌대학30 본지정을 위해 지역사회와
한남대 구성원들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나?**

A

글로벌대학 지정을 위해서는 구성원들의 전폭적인 이해와 동의가 필요하다. 대학의 혁신노력들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여러 어려움이 발생할 것이다. 중요한 점은 우리의 고난과 인내의 끝에는 우리의 성장과 발전이라는 명확한 결실이 있다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구성원들께 양해와 동시에 많은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글로벌 대학 사업을 통해서 한남대학교의 미래 100년을 책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려 한다.

2025 새롭게 출발하는 RISE 사업

RISE?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한남대학교가 대전시가 추진하는
2025년 대전형 라이즈 사업에 선정되면서 본격적인
사업 출발을 알렸다.

지자체 주도로 교육혁신과 지역상생을 이끄는 ‘대전형 라이즈(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 RISE)’ 사업은 대전지역 13개 대학과 함께 본격적으로 출범했으며, 한남대학교는 62억원 ~ 64억원의 사업비를 지원받게 된다.

한남대는 지역선도형 대학교육 활성화 사업으로 미래인재 양성 분야에 참여해 과제 수행을 하며, 지역정주형 취 · 창업 활성화 프로젝트 중 얼리버드 취업지원과 지역창업촉진, 지역정주 활성화 사업이 각각 선정됐다. 또 지속발전형 자산학연협력 고도화 사업에서 출연연 연구협력사업과 대학 간 교육협력사업, 지역자원 산학협력 사업 등에 참여한다. 이밖에 RISE 촉진형 지역현안 해결 사업에서 한남대는 외국인 교육, 정주도시 구축 분야에 선정됐다.

대전시는 전략산업을 기반으로 산업-과학-창업을 결합한 차별화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첨단기술과 창업생태계 연계를 통한 혁신 확산과 지역성장 모델을 구축하고 있다. 한남대는 신입생 충원율과 졸업생 취업률, 교원 1인당 연구비가 타 대학 평균 대비 상대적 우위를 갖추고 있다. 한남대는 대전시 전략특화 산업 분야 중 대전시의 중점 추진방향과 한남대의 내부 보유역량을 고려해 5개 특성화 분야를 도출했다.

한남대는 충청권 유일의 디자인팩토리를 활용해 대전시 미래인재양성 특성화를 주도하고 전국최초의 캠퍼스혁신파크를 활용한 자산학연 동반성장과 협력, 대전권 유일의 창업중심 대학 활용, 20년 경험이 축적된 린튼글로벌스쿨 활용 등을 통해 대전시 산업정책 연계에 나서게 된다.

한남대학교 창업존 전경



좌. 창업보육센터 전경 우. 창업존

한남대의 특성화 분야는 우주항공(위성활용), 바이오헬스, 국방반도체, 국방 · 드론 · 로봇(무인기융합), 생성형 AI 등이다. 한남대는 대전시 전략산업과 한남대 5대 특성화 분야를 연계한 융복합 미래인재 양성에 나서게 된다.

이번 선정된 얼리버드 취업지원 사업은 지역기업은 우수인재 확보를, 대학생은 취업과 실무경험 기회를 확보하기 위한 상생 사업으로 캡스톤디자인 다양화와 실용적이고 수준 높은 얼리버드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지역창업 촉진 사업도 진행한다. 실전형 창업기업인턴십과 창업전문인력 양성 등 창업교육 활성화와 실험실 특화 창업, 스타트업 투자 컨퍼런스 등 창업기업 성장 지원을 위한 실험실특화 기술창업 활성화 사업, 로컬

브랜드 플랫폼 개발 등 지역특화 창업 도시 브랜딩 사업도 진행한다. 한남대는 창업유관기관과 대학창업운영위원회를 구성해 체계적인 창업 협력 지원 플랫폼을 구축한다.

한남대만 보유한 캠퍼스혁신파크를 기반으로 청년 일자리와 산업 간 실질적 연계기반을 확보하는 대전스타트업타운 연계 지역정주 활성화 사업도 진행된다.

원구한 라이즈 사업단장은 “한남대는 지자체 과제에 맞춘 성공적인 라이즈 추진을 위한 다양한 전략을 갖고 있으며, 타 대학과 차별화된 산업 기반이 있는 만큼 이를 활용해 대학의 특성화 강점을 살린 적극적인 활동을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형 라이즈
선정평가 결과

대학명 가나다순
컨소시엄은 2개 이상 대학
(단위 : 백만원)

※지정과제인
DSC 공유대학은 별도 /
11억 8000만원
- (주관대학)
충남대,
(참여대학)
국립한밭대, 대전대,
목원대, 우송대,
우송정보대, 한남대,

프로젝트명	단위과제명	선정예산	선정대학	과제
I 지역선도형 대학교육 특성화	1-1 미래인재 양성	154억 1100만원	• 건양대, 국립한밭대, 대전대, 배재대, 을지대, 충남대, 한남대	13
	1-2 현장인재 양성	88억 6900만원	• 대덕대, 대전과학기술대, 대전보건대, 목원대, 우송대, 우송정보대	12
II 지역정주형 취창업 활성화	2-1 얼리버드 취업지원	88억 6900만원	• 건양대, 국립한밭대, 대덕대, 대전과학기술대, 대전대, 대전보건대, 목원대, 배재대, 우송대, 우송정보대, 충남대, 한남대	12
	2-2 지역창업 촉진	82억 4900만원	• 건양대, 국립한밭대, 대덕대, 대전대, 대전보건대, 목원대, 우송대, 충남대, 한남대	9
	2-3 지역정주 활성화	20억 4600만원	• 대전과학기술대, 배재대, 충남대, 한남대	4
	3-1 출연연 연구협력	62억 6500만원	• 국립한밭대, 충남대 컨소시엄(건양대, 대전대, 을지대), 한남대	3
III 지속발전형 자산학연 협력 고도화	3-2 대학 간 교육협력 (공동형 과제)	44억 9400만원	• 충남대 컨소시엄(대덕대, 국립한밭대, 대덕대, 대전과학기술대, 대전대, 대전보건대, 목원대, 배재대, 우송대, 우송정보대, 을지대, 한남대) • 국립한밭대 컨소시엄(우송대) • 우송대 컨소시엄(건양대, 을지대) • 국립한밭대 컨소시엄(건양대, 대덕대, 대전과학기술대, 대전대, 대전보건대, 목원대, 배재대, 우송대, 우송정보대, 충남대, 한남대) • 목원대 컨소시엄(건양대, 국립한밭대, 대덕대, 대전과학기술대, 대전대, 대전보건대, 배재대, 우송대, 우송정보대, 충남대, 한남대)	5
	3-3 지역지원 산학협력	70억원	• 건양대, 국립한밭대, 대전대, 대전보건대, 우송정보대	11
	4-1 산업인력 재교육	19억 6800만원	• 건양대 컨소시엄(대덕대), 국립한밭대, 대전대, 대전보건대,	5
IV 생애성장형 직업평생 교육 강화 고도화	4-2 시민 평생교육	31억 3600만원	• 대전과학기술대, 대전보건대, 목원대, 배재대, 우송대, 우송정보대	6
	5-1 외국인 교육 정주 도시 구축	28억 2600만원	• 대덕대, 대전과학기술대, 목원대, 배재대, 우송대, 우송정보대, 한남대	7
V RISE 촉진형 지역현안 해결 고도화	5-2 지역현안해결 및 꿀캠도시 조성	50억 3600만원	• 건양대 컨소시엄(대덕대), 국립한밭대, 대전대, 대전보건대, 목원대, 배재대, 우송대, 충남대	8
	5개 프로젝트	12개 단위과제	643억 3300만원	83

한남대 70주년 헤리티지 영상, 역대급 동문 발자취 엿본다.

한남대 70주년 헤리티지 영상 제작,
한남 구성원이 전하는 ‘대학의 가치’

한남대가 2026년 개교 70주년을 앞두고
한남 동문들의 생생한 목소리가 담긴
헤리티지 영상을 제작한다.



최초의 여성 소방감에 오른 이오숙 전북소방본부 본부장이
후배들을 위한 아낌없는 조언을 촬영 중이다.

헤리티지 영상에는 재학생, 교수, 직원은 물론,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13명의 동문 선배들이
등장해 한남대 캠퍼스의 추억을 떠올리고 후배들을 위한 희망찬 메시지를 전달한다. 영상
에는 대학 변천사와 함께 성공한 기업인, 창업자, 언론인, 디자이너, 군인, 소방공무원,
유튜버, 스포츠 감독, NGO, 연구원, 유학생 동문까지 다양한 분야에 종사하는 선배들이
출연해 국내외 현장에서 전문가로 활동하는 모습들을 선보인다.

전 현대백화점 대표이사(현 한남유니온
회장)를 지낸 영어영문학과 73학번 졸업
생인 김영태 회장은 사원으로 입사해
사장까지 역임하고 전문경영인을 역임
하기까지 그의 노력과 성실함을 후배들
에게 전달한다.



김영태 회장
(전 현대백화점 대표이사)

KBS PD수첩의 오랜 진행자이자 이태석
신부의 다큐멘터리 ‘울지마 톤즈’를 제작
해 화제가 됐던 구수환 이태석 재단 이사
장(전 KBS PD)은 한남대 생물학과 (현
생명시스템과학과) 79학번이다.

구 이사장은 “아프리카 의료 환경 개선과
교육을 위해 사랑과 헌신으로 깊은 감동
을 주셨던 이태석 신부님의 삶을 본받아
봉사하면서 마음에 기쁨과 행복이 충만
한 삶을 사는 후배 여러분이 되길 바란
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구수환 이태석 재단 이사장
(전 KBS PD)



좌. 구독자 400만 명을 보유한 유튜버 ‘사나고’(권원진 씨)
우. ROTC 출신 최초의 4성 장군을 지낸 신화현 전 제2작전사령부 사령관

구독자 400만 명을 보유한 유튜버 ‘사나
고’(권원진 씨)는 한남대 예술문화학과
(현 융합디자인학과) 11학번으로 국내
최초 3D펜 아티스트로 불리며 다양한
작품과 영상을 제작하고 있다. 국내 유명
크리에이터로 활동하며 한남대와 대전
의 이름을 국내외에 홍보하고 있는 그는
창의적인 메시지를 통해 새로운 도전을
시도하는 후배들에게 희망을 선물한다.

이 밖에도 신한은행 여자 프로 농구 감독
을 역임하고 있는 생활체육학과(현 스포
츠과학과) 11학번 출신의 최윤아 감독과
한남대 행정학과 85학번으로 ROTC 출
신 최초의 4성 장군을 지낸 신화현 전 제
2작전사령부 사령관, 대한민국 정부수
립 이후 최초의 여성 소방감에 오른 이오
숙 (행정학과 85학번) 전북소방본부 본
부장 등이 출연해 후배들을 위한 아낌없
는 조언을 전한다.

학교가 제공하는 4평 남짓 작은 공간에
서 창업해 대전의 3곳 매장과 해외 매장
까지 운영, 연 50억 원이 넘는 매출을 자
랑하며 승승장구하고 있는 이지영 몽심
대표(미술교육과 14학번)와 인공지능을
활용한 불법 피싱 차단 서비스를 개발해
30만 다운로드를 기록하며 글로벌 사이
버 환경 안전에 기여하고 있는 ㈜필상의
강필상 대표(컴퓨터공학과 01학번)도
성공 창업인으로 창업을 도전하는 후배
들에게 도전의 메시지를 전한다.

“
한남 동문들이
생생한 목소리로
전하는
‘대학의 가치’
한남대 70주년
헤리티지 영상
”

한남대 영어영문학과 81학번인 박영지 전 KBS
총국장(현 대전 교통방송 사장)과 한남대 응용
미술학과 (현 융합디자인학과) 88학번인 용성진
한국지엠 소속 자동차 디자이너도 전문가로서
후배들을 위한 아낌없는 애교심을 전했다.

이밖에 2013년 한남대 린튼글로벌칼리지를 졸업
하고 해외 사업가로 활동하는 유학생 동문 다니엘
아두카와 미생물학과(현 생명시스템과학과) 98
학번 출신의 미국 질병관리본부 백신센터 문성실
연구원, 한남대 영문학과를 졸업한 아람에미레
이트 항공사 정인웅 기장은 해외에서 온라인을
통해 영상 인터뷰에 참여했다.

아람에미레이트 항공사
정인웅 기장



좌. 연 50억 원이 넘는 매출을 자랑하며 승승장구하고 있는 이지영 몽심 대표
우. 인공지능을 활용한 불법 피싱 차단 서비스를 개발해 30만 다운로드를 기록하며
글로벌 사이버 환경 안전에 기여하고 있는 ㈜필상의 강필상 대표



“ 빈 강의실 찾기 웹 서비스 ‘공강룸’ 개발한 김선호 학생 ”

“제가 대학생생활하면서
불편했던 부분이 개선되길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후배들이 효율적인 공강 시간을 보내고,
대학 생활을 편리하게 하길 바랍니다”

학교 내 빈 강의실을 빠르게 파악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강룸’ 웹 서비스를 개발, 무료 공개한
한남대학교 정보통신공학과
김선호 학생(4학년)

한남대학교 정보통신공학과 김선호 학생
(4학년)이 학교 내 빈 강의실을 빠르게
파악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강룸’ 웹 서비스를 개발하고 재학생
들을 위해 무료로 공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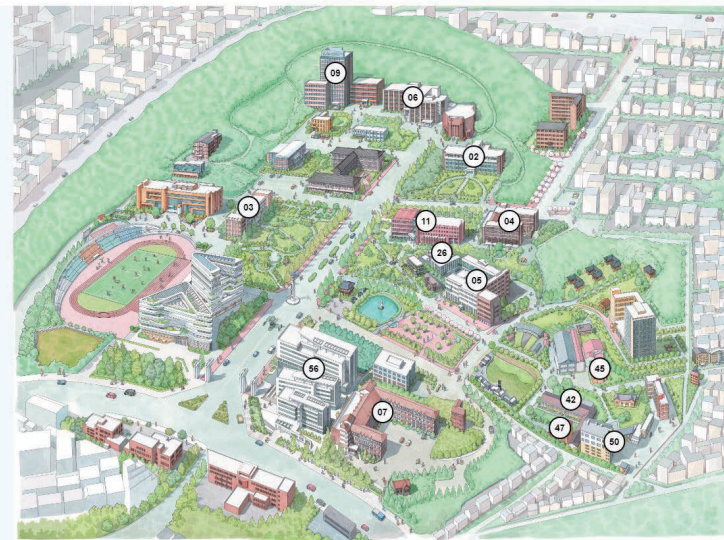
‘공강룸’ 웹 서비스를 활용하면 한남대학교 내
빈 강의실 맵 정보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고, 빈 강의실을 활용해 자습이나 팀 프로
젝트를 위한 미팅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다.

김 군은 우선 한남대 에브리타임을 통해 학생
들에게 웹주소를 배포했으며, 학과 사무실을
통해 재학생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배포했다.
어플리케이션 개발이나 웹서비스 개발이 대부
분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지만, 그는 본인이
겪었던 불편함을 후배들이 겪지 않길 바라는
마음으로 자신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래밍 능력
을 활용해 일종의 ‘재능기부’를 하게 됐다.

그는 “공과대학은 팀 프로젝트가 많다. 팀 프로
젝트를 하려면 공간이 필요하지만, 단과대별로
활용 가능한 공간을 찾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며, “빈 강의실이 있다면 자유롭게 활용하고
싶다는 생각에 한눈에 볼 수 있는 빈 강의실
찾기 웹 서비스인 ‘공강룸’을 개발하게 됐다”
고 설명했다.

공강룸

대학별 캠퍼스 맵



학교 내 빈 강의실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는
‘공강룸’ 웹 서비스

공강룸

대학별 캠퍼스 맵

9번 건물 - 공과대학

B1F 1F 2F 3F 4F 5F

4층 강의실

이용 가능한 강의실 목록입니다.

1 090401 빈 강의실	2 090402 빈 강의실	5 090405 빈 강의실	8 090408 빈 강의실	9 090409 빈 강의실	10 090410 빈 강의실	11 090411 빈 강의실	20 090420 빈 강의실	21 090421 빈 강의실
24 090424 빈 강의실	25 090425 빈 강의실							

빈 강의실
찾기 웹 서비스
‘공강룸’

김 군은 친구인 김민석 군과 함께 공동 개발에 돌입했다. 건물
별로 강의실별 사용 현황을 일일이 체크해 정보화했으며, 개강
후 시간표 변경에 따른 내용까지 최종자료를 업데이트했다.
도메인과 서버유지비, 프론트 배포 비용 모두 김 군과 공동
개발자 친구가 기부 차원에서 부담했다.

수익은 없지만 서비스 공개 후 후배들의 “편리하게 잘 이용하고
있다”는 인사 한마디가 김 군에게 큰 힘이 됐다.

그는 프로그램 개발자가 꿈이다. 그는 “프로그램 개발자들이
대부분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배포하는데 그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번 공강룸을 개발하고 배포하고 사용자 피드백을
받으면서 서버 유지보수 등 실시간으로 현장경험을 하는 것
같아 도움이 많이 됐다”고 말했다.

기업 맞춤형 SNS 자동 콘텐츠 생성기업 (주)이더라 배윤혁 학생

“아직 젊음이 있잖아요.
힘들고 실패하더라도
계속 도전하다 보면
언젠가 성과가
남아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올해의 목표는 유료사용자를 많이 확보해 5000만원의 매출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그는 “소박한 목표지만 이를 위해 자영업자 모임을 여러 개 가입하고 발로 뛰어 적극적인 홍보를 하고 있다”며 “한남대와 주변 멘토들의 많은 도움으로 창업 기반을 탄탄히 잡아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현재 (주)이더라 배윤혁 대표는 자신 외에 팀원 3명을 이끌고 있다. 프로그램 개발 등을 위한 2명의 컴퓨터공학과 전공자와 디자인을 위한 1명의 디자인 전공자이다.



배 대표는 스포츠 영상 분야에 새롭게 도전할 계획이다. 그는 “컴퓨터 프로그래밍 등에만 분야를 한정되게 연구해 왔는데 영상 촬영, 드라마 등 영상분야로 분야를 확장해보고 싶다”며 “아직 학생신분이지만 다양한 도전과 기회를 만들어준 한남대에 무한한 감사의 마음을 갖고 있다. 학교의 지원에 보답하기 위해 열심히 사업하고 기술개발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SNS marketing

인공지능을 활용해 하나의 콘텐츠로 제각각인 SNS 플랫폼을 만들고 운용하는 SNS자동 콘텐츠 프로그램을 개발해 낸 (주)이더라 배윤혁 대표(컴퓨터공학과 4)는 도전이 두렵지 않다.

한남대 기계공학과에 입학했으나 군대를 다녀오고 컴퓨터 공부를 하면서 컴퓨터 공학으로 전과를 했다. 배 대표는 컴퓨터를 공부하면서 ‘스스로 돈을 벌해보자’는 마음에 웹사이트를 만들고 회사 홈페이지를 제작 관리하는 아르바이트를 했다. 일반 아르바이트보다 고수익을 내면서 배 대표는 자신이 알고 있는 인공지능과 컴퓨터 프로그래밍 기술을 활용해 창업을 결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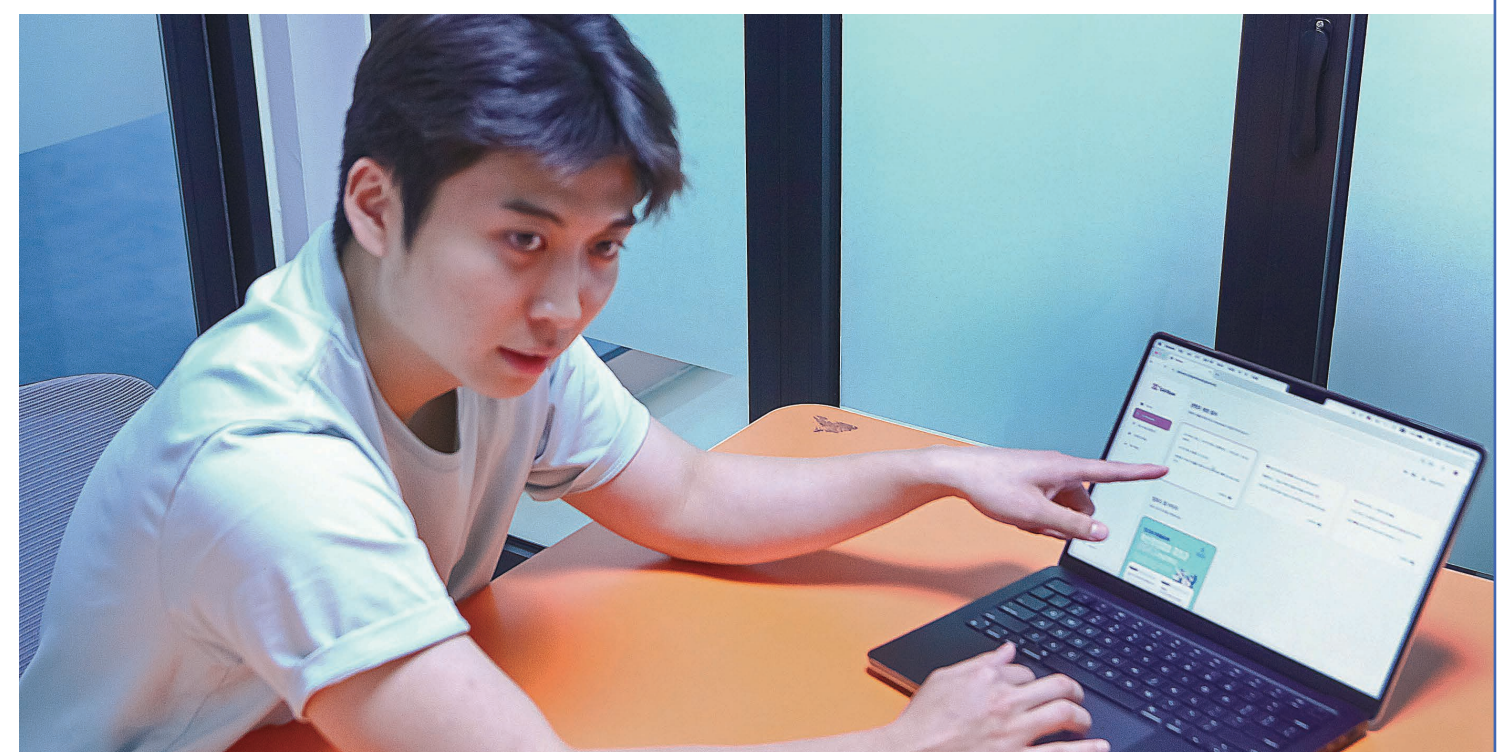
“군대에 다녀와서 창업동아리를 시작했어요. 팀원으로 시작해 2회 차부터 대표가 됐고 벌써 창업동아리를 한 지 3년 차가 됐네요”

배대표는 학교의 각종 창업 프로그램과 지원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했다. 매년 창업동아리 지원금과 멘토링 등을 받으며 성장했고, 동아리에서 시작한 이더라는 현재 어엿한 주식 회사가 됐다.

(주)이더라가 제공하는 플랫폼은 SNS 마케팅 플랫폼이다.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SNS마다 규격과 텍스트, 스타일이 다르지만 이더라의 플랫폼을 활용하면 한 번에 하나의 콘텐츠로 다양한 SNS를 운영할 수 있다. (주)이더라가 제공하는 다송출 시스템의 핵심기술은 현재 특허 출원을 진행 중이다. 특허출원은 7월이면 마무리될 예정이다.

아직 큰 수익은 없지만, 웹사이트 개발과 운영 수익으로 (주)이더라의 기술력을 키워나가고 있다.

platform



SNS marketing

platform

Dreams of Chemistry 학과 홍보곡 작곡한 이성광 교수

“새로운 발견을 추구하며
미래의 도전에 맞서는
우리 화학과 학생들의 열정과
헌신을 담았습니다”

한남대학교 화학과 이성광 교수(학과장)가
최신 기술을 활용해 화학과 홍보곡
(웹 주소= <https://youtu.be/iaKhchX-6Qk>)을
작곡해 눈길을 끈다.

이 교수는 자신이 직접 작사하고 만들어낸 화학과 홍보곡
‘Dreams of Chemistry’를 SNS를 통해 공개했다.
이 교수는 생성형 AI를 활용해
연구 모델을 개발하고 분석하는 데이터 화학 전공자로
생성형 AI를 활용하는 기술 활용이 용이하다.

이 교수는 한남대 사범대학교 학생들을 위해
AI를 활용한 에듀테크 특강을 맡게 됐고,
이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작곡과 영상 제작 활용까지
공부하면서 학과 홍보 음악을 만들게 됐다.

그는 “화학과의 특성이나
학과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야 해서 직접 작사하고,
관련 이미지도 만들어 영상을 제작하게 됐다”며
“반복되는 실험 속에서 새로운 해답을
끊임없이 모색하며 화학의 길을 걷는
학생들을 격려하기 위해 만들어진 노래인만큼
경쾌한 K팝 스타일의 홍보곡”이라고 말했다.

학생들과 동문들은
“학과홍보 곡이라고 큰 기대를 하지 않았지만,
노래도 좋고 재미있다. 무엇보다 학과를 홍보할 수 있는
가사가 좋다”고 입을 모은다.

<https://youtu.be/iaKhchX-6Qk>



한남대 화학과는 학교 개교와 함께 만들어진
한남대의 대표학과로 1956년 설립돼 학부졸업생 2000여명,
대학원 석사150여명, 박사20여명을 배출하는 등
69년의 역사와 전통을 갖고 있다.
화학과는 3학년부터 학부생 연구생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매년 전국단위 전문 학술대회에서 주저자로
50회 이상 발표 등의 성과를 내고 있다.

이성광 교수는 정부출연연구소와
박사급 대학교수 등을 대상으로 ‘바이오화학 데이터과학’,
‘바이오화학정보개론’ 등의 공개강의를 진행해
높은 인기를 끌었으며 ‘VR로 배우는 생물화학정보학’
강의 운영 등 데이터 화학분야를 활용해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화학과를 위한 노래 뮤직비디오 캡처화면



새로남교회 오정호 목사 대학장 수여

한남대학교는
새로남교회
오정호 담임목사에게
대학장을 수여했다.

지난 5월 21일 저녁 7시 30분
새로남교회 예배당에서
원구환 기획조정처장의 사회로
대학장 수여식이 열렸으며,
이승철 한남대 총장이
오정호 담임목사에게
대학장을 전달했다.

대학장은 창학 이념에 입각해
대학 발전에 뚜렷한 공을 세운 인사에게
수여하는 대학 최고의 영예로운 포상이다.

오정호牧사는 충신대 종교교육학 학사와
목회학 석사를 받고 지난 1994년부터
현재까지 새로남교회 담임목사를
역임하고 있으며, 대한예수교 총회와
교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아왔다.



새로남교회 예배당에서 대학장 수여식이 열렸다.



이승철 한남대 총장(오른쪽)이
오정호 담임목사(왼쪽)에게
대학장을 전달했다.

108회 총회장을 비롯해 제109회 총회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한국교회총연
합회 공동대표이사 등을 역임했고 CTS
공동 대표이사 등 교계 활동을 활발히 해
왔다.

특히 한남대학교 총장자문위원으로 한남
대의 운영과 대외홍보에 대한 자문을 아
끼지 않았으며, 한남대 ‘아너스클럽’ 회원
으로 지난 2008년부터 현재까지 2억 원
이상의 고액 기부를 통해 창학 정신에 걸
맞는 기독교 인재를 배출할 수 있도록 지
원해왔다.

이승철 총장은 “오 목사님은 교계의 성장
과 지역사회 발전에 헌신적인 리더십을
발휘해 오셨으며, 새로남기독교 학교 설립
자 및 이사장으로 기독교 교육의 확산과
젊은 세대의 신앙 교육에도 기여해 오셨
다”라며 “기독교 인재를 배출할 수 있도
록 큰 기부와 격려가 학교 발전에 많은 힘
이 됐다”고 말했다.

오정호 목사는 “기독교 정신을 이어가며
기독교 인재를 배출하고 있는 한남대가
늘 자랑스럽고 감사한 마음”이라며 “대학
장이라는 큰 영광을 마음속 깊이 간직할
것이며, 한남대가 더욱 발전하길 기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남대 계열별 자유전공학부 2026년 파격적 학제 개편



한남대학교가 학생들의 전공 자율선택을 강화하기 위해 2026학년도부터 파격적인 학제 개편에 나선다.

한남대는 2026년도 전공자율선택제 강화의 일환으로 자유전공학부를 2가지 유형으로 신설 및 확대하며, 모집인원이 489명으로 전체 모집인원의 18%에 이른다.

2025학년도 한남대는 탈메이지교양·융합대학 소속의 자유전공학부로 110명의 학생을 선발했으며, ▲일반공학 ▲화학 및 바이오 ▲IT 관련 ▲인문·사회·경상계열 등 4개 트랙의 전공을 체험하고 원하는 학과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해 왔다.

2026학년도부터 한남대는 기존의 자유전공학부 소속 유형1로 235명의 학생을 선발하며 단과대별 자유전공학부 유형2로 254명을 선발한다. 유형1의 자유전공학부는 사범대학 소속학과, 간호학과 등은 선택이 불가능하다. 유형2인 계열별 자유전공학부는 ▲문과대학 자유전공학부 ▲공과대학자유전공학부 ▲스마트융합대학자유전공학부 ▲경상대학자유전공학부 ▲사회과학대학자유전공학부 ▲생명나노 과학대학 자유전공학부 등 6개 단과대학으로 나눠 선발한다.

한남대 자유전공학부는 2017학년부터 신입생을 모집하며 내공을 쌓아왔다. 알파고와 같은 인공지능과 4차 산업혁명으로 대변되는 사회환경의 변화는 미래의 직업과 직결된 전공을 선택해야 하는 수험생들에게 어려운 선택을 강요하고 있다. 자유전공학부는 신입생들이



자유전공학부 (전공자율선택제) 선택 가능 학과

유형	모집단위	선택가능학과	선발범위
유형 I (235명)	탈메이지 교양·융합대학 자유전공학부	- 국어국문·창작학과, 영어영문학과, 응용영어콘텐츠학과, 일어일문학과, 프랑스어문학과, 문헌정보학과, 사학과, 기독교문학과, - 정보통신공학과, 전기전자공학과, 멀티미디어공학과, 건축학과, 건축공학과, 건설환경공학과, 기계공학과, 화학공학과, 신소재공학과, - 컴퓨터공학과, 산업경영공학과, AI융합학과, 수학과, 빅데이터응용학과, - 경영학과, 회계학과, 무역물류학과, 경제학과, 중국경제통상학과, 호텔항공경영학과, 경영정보학과, - 행정학과, 경찰학과, 정치·언론학과, 사회복지학과, 아동복지학과, 상담심리학과, 사회적경제기업학과, 법학부(법학전공/법무법학전공) - 생명시스템과학과, 식품영양학과, 화학과, 스포츠과학과, 바이오제약공학과 - 융합디자인학과, 화학과, 패션디자인학과, 미디어영상학과, 린튼글로벌스쿨	100% 자율 선택 가능
	문과대학 자유전공학부	국어국문·창작학과, 영어영문학과, 응용영어콘텐츠학과, 일어일문학과, 프랑스어문학과, 문헌정보학과, 사학과, 기독교문학과	
유형 II (254명)	공과대학 자유전공학부	정보통신공학과, 전기전자공학과, 멀티미디어공학과, 건축학과, 건축공학과, 건설환경공학과, 기계공학과, 화학공학과, 신소재공학과	
	스마트융합대학 자유전공학부	컴퓨터공학과, 산업경영공학과, AI융합학과, 수학과, 빅데이터응용학과	100% 자율 선택 가능
	경상대학 자유전공학부	경영학과, 회계학과, 무역물류학과, 경제학과, 중국경제통상학과, 호텔항공경영학과, 경영정보학과	
	사회과학대학 자유전공학부	행정학과, 경찰학과, 정치·언론학과, 사회복지학과, 아동복지학과, 상담심리학과, 사회적경제기업학과, 법학부(법학전공/법무법학전공)	
	생명·나노과학대학 자유전공학부	생명시스템과학과, 식품영양학과, 화학과, 스포츠과학과, 바이오제약공학과(단, 간호학과는 선택불가)	

한남대학교 생명시스템과학과 이진아 교수가
‘2025년 대한생화학분자생물학회(KSBMB) 여성 생명과학자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이번 수상은 지난 5월 중순 학회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했으며,
시상식은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된 연례 국제학술대회 기간 중 진행됐다.

한남대 생명시스템과학과 이진아 교수 2025 KSBMB 여성 생명과학자상 수상



KSBMB 여성 생명과학자상은 생명과학 분야에서
탁월한 연구 성과를 거두고, 후속 여성 과학자
양성에 기여한 연구자를 선정해 수여하는
권위 있는 상으로 상금 500만원이 주어진다.

이진아 교수는 자가포식을 중심으로
신경퇴행성 질환의 발병 메커니즘을 연구해 왔으며,
루게릭병(ALS), 전두측두엽 치매(FTD),
코엔 증후군(Cohen syndrome) 등에서
세포 항상성 조절 기전을 규명해 왔다.

특히 FUS, p62, GABARAP, FYCO1 등 단백질의
역할을 밝히며 스트레스 과립 및 유비퀴틴화
시스템과의 연계를 중점적으로 연구해 왔다.
또한 3D 오가노이드와 iPSC 기반 인간 세포
모형을 활용해 질환 기전을 정량적·동적으로
분석하는 연구도 활발히 수행하고 있다.

이 교수는 지난 2022년 한남대가 운영하는
‘실험실특화형 창업선도대학 육성사업’
(중소벤처기업부 소관)에 참여해 맞춤형 컨설팅과
사업화 시장성분석, 투자교육, 특허침해지원 등을
받아 ㈜파지텍바이오 창업에 성공했다.
이 교수는 신약이 출시됐을 경우 신약의 효능을
검증할 수 있는 플랫폼 기술을 개발해 냈다.

세계 최초로 내재적 자가포식센서를 이용한
자가포식 실시간 이미징 기술 개발에 성공했으며,
특허 7건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선택적 자가포식억제제를 개발해
현재 노화와 신경질환, 암, 심장질환, 간질환 등
다양한 질병과 연관된 자가포식조절약물
(질환치료제) 개발에 상당한 성과를 내고 있다.

이 교수는 수상 소감에서
“연구자로서 묵묵히 걸어온 길에 감사하며,
앞으로도 생명과학 발전과 젊은 연구자 양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진아 교수의
2025 KSBMB 여성
생명과학자상 시상식은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된
연례 국제학술대회
기간 중 진행됐다.



Hannam University

한남대 축구부 출신 4명, U20·U22 국가대표 선발

한남대학교
축구부 출신 이수아,
조현우, 김동진,
정승배 선수가
2025년 대학축구연맹
U20과 U22
연령별 국가대표로
발탁됐다.



한남대에 따르면 지난 6월 2일부터 이집트
카이로에서 열린 국제 친선경기에 출전
하는 남자 20세 이하 대표팀(U20) 소집
명단(27명)에 한남대 출신 이수아(부산
아이파크) 선수와 조현우(대전 하나시티
즌) 선수가 발탁됐다. 이수아 선수는 미드필
더를, 조현우 선수는 수비수를 맡게 된다.

이번 국제 친선대회는 U20 월드컵을 앞두
고 실전 경험을 쌓는 기회가 됐으며, 젊은
선수들의 기량을 확인하는 대회가 됐다.

지난 6월 5일 하나은행 초청 호주 U-22
축구 국가대표팀 친선경기 소집 명단에
도 한남대 출신 김동진(포항스틸러스),
정승배(수원 FC) 선수가 각각 이름을 올
렸다. 김동진 선수는 미드필더를, 정승배
선수가 공격수로 각각 발탁됐다. 이들 두
선수는 한남대 재학시절 지난 2023년과
2024년 2년 동안 한국대학축구연맹 주
관 8개 대회에서 5차례나 우승 트로피를

차지했던 우승의 주역이기도 하다.

국가대표 발탁 선수들은 모두 한남대 재
학중 3학년 이전에 프로선수로 발탁돼 프
로 무대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으며,
학교의 명성을 드높이고 있다.

한남대는 최근 대학축구 역사상 최초로
‘1·2학년 대학축구연맹전’에서 3년 연속
우승하는 등 대학 축구 명문으로 손꼽히
고 있으며, 체계적인 훈련과 실력으로 선
수들이 뛰어난 기량을 보이며 상당수가
대학 재학 중 프로 무대에 진출하는 등 경
쟁력을 인정받고 있다.

박규선 한남대 축구부 감독은 “한남대 출
신들이 재학 중 프로무대에 발탁되고 프
로 무대에서 국가대표로 선발되는 과정
을 지켜보니 자랑스럽고 뿌듯하다”며 “더
욱 성장한 모습으로 출신 대학 이름을 빛
내주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사진설명

하단 왼쪽부터
조현우, 이수아, 김동진, 정승배 선수

사진출처
축구부 한유프 조예영 학생





한남대 디자인팩토리 영국 Stylideas社 참여 글로벌캡스톤 디자인서 ‘우승’

한남대학교 디자인팩토리 학생들이
영국 기업 Stylideas社가 참여한
2025학년도 1학기 글로벌 캡스톤 디자인
교과목에서 최종 우승을 차지했다.

이번 글로벌 캡스톤은 영국, 라트비아, 콜롬비아, 중국, 한국 등 5개국 10개 학생
팀이 국제 공모전 형태로 진행됐으며, 한남대 디자인팩토리 Tone팀(김태용,
문해찬, 백인서, 안연진, 양서영, 장근우, 장연희, 지민혁)이 우승을 차지했다.

한남대는 Global Design Thinking Project(3학점) 교과목을 운영했으며
한남디자인팩토리 외에도 영국의 브루넬 대학 런던 디자인팩토리(Brunel
University), 라트비아 리가 기술대학 라트비아 디자인팩토리(Riga Technical
University), 콜롬비아 하베리아나 대학 칼리 디자인팩토리(Universidad
Javeriana), 중국 동제대학교 중-핀란드 혁신센터(Tongji University(Sinno-
Finnish Centre)), 연세대학교 디자인팩토리 코리아가 참여했다.

Stylideas社は LED마스크와 뷰티 전자 디바이스 대중화를 이끄는 영국의
대표적인 글로벌 기업이며, 이번 글로벌캡스톤에서 ‘전자 뷰티 디바이스의
새로운 수요 발굴’을 주제로 제시했다.

이번 글로벌 캡스톤은 디자인팩토리의 대표 교원의 팀티칭과 Stylideas社の
수석 디자이너와의 질의답변 세션을 주기적으로 개최하는 방식으로 수업이 운영
됐다. 이번 교과목에 참여한 학생들은 강의 수강 외에도 Stylideas社가 제안한

주제를 가지고 1학기 기간 동안 창의적인 솔루
션을 도출하기 위해 노력했다.

우승을 차지한 한남대 Tone팀은 수돗물의 수질
차이에 따른 피부 트러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휴대용 워터 답클렌징 기기를 개발했다.

이 디바이스는 교체형 필터를 통해 석회수 성분의
수질을 개선할 뿐만 아니라, 비타민과 콜라겐을
함께 공급함으로써 워터 클렌징 디바이스라는
새로운 수요를 발굴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내장된
LED 시스템은 사용자의 피부 주름 개선을 지원
하는 기능까지 포함해 미용 기기로서의 활용도를
극대화해 우승을 차지했다.

2등은 중국 중-핀란드 혁신센터의 ‘Onpatch’
팀이 차지했다. 3등을 차지한 한남 디자인팩
토리 ‘Brill’ 팀은 사용자의 감정과 사용자 주변
환경 인식을 기반으로 하는 맞춤형 음악 추천과
조명 효과를 제공하는 LED 마스크를 선보였다.

한남디자인팩토리 유금 센터장은 “글로벌비즈
니스, 기계공학, 컴퓨터공학, 미디어영상, 융합
디자인까지 다양한 전공의 학생이 하나의 팀
으로 구성돼 창의적문제해결역량을 증진시키는
디자인팩토리의 디자인씽킹 교육 방법론은 세계
적인 추세이며, 글로벌대학30 사업 본 지정에
도전하는 우리 대학도 이러한 교육 혁신을 확대
할 계획”이라며 “학생들의 잇따른 성과는 한남의
교육 프로그램이 국제무대에서 경쟁력을 입증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남대 중앙박물관 소장유물 ‘평양성탈환도’ 문화적 가치 알린다.

한남대학교 중앙박물관 소장 유물인 ‘평
양성 탈환도’가 2025년 문화체육관광부
· 한국박물관협회가 추진하는 ‘유지엄 ×
만나다’ 사업에 선정돼 전 국민들에게 문
화적 가치를 알리게 됐다.

이번 사업은 전국의 박물관과 미술관이
소장한 문화 자산과 그 속에 숨겨진 이야
기를 발굴해 홍보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대전에서는 한남대 ‘평양성 탈환도’와 대전
시립박물관 소장 한글 편지가 선정됐다.

한남대 소장 유물인 ‘평양성 탈환도’는 임진
왜란 중에 일어난 평양성 전투를 8폭의
병풍에 자세하게 묘사했으며, 당시 전투
상황과 전투에 참여한 주요 인물들을 상세
하게 담고 있어, 중요 자료로 역사적 가치
가 높은 작품이다.

한국 회화에서 보이는 사실적인 묘사와
함께 당시 군사의 복장, 무기, 배경 등이
생동감 있게 그려져 있고, 조선과 명, 왜 세
나라가 관여된 대규모 전투를 묘사하고
있는 점에서 조선 후기 동아시아 역사의
중요한 순간을 포착해 기록하고 있다.

평양성 전투는 1593년 당시 전세를 바
꾸는 중요 전투로 평가되는데, 이를 기록
화로 남긴 8폭 병풍 1점은 국립중앙박물관
에, 1점은 한남대 중앙박물관이 소장
하고 있다.

이 작품은 미국 남 장로교 선교사로
1913년 한국을 방문한 존 크레인 선교
사가 수집한 자료로 그의 아들인 폴 크레
인 선교사가 한남대 인문학술원에 기증
하면서 소장하게 됐다. 제작 연도와 작자

등은 미상이지만 존 크레인 선교사의 활동
시기로 보아 적어도 18세기말에 제작됐
던 그림을 입수한 것으로 추정된다.

한남대 변봉규 박물관장은 “‘평양성 탈환
도’는 단순히 한 폭의 그림이 아니라 역사
와 군사, 예술적 가치를 모두 지닌 중요
한 유산임에도 그 가치가 잘 알려지지
않았다”라며 “이번 사업 선정을 통해 이러
한 가치들이 재조명받기를 바라며 지역
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한남대 중앙박
물관을 찾아달라”고 말했다.



국내대학 첫 대규모 'Wi-Fi 7' 구축

한남대학교가 국내 대학 최초로 대규모 'Wi-Fi 7' 인프라를 구축하고 모바일 시대에 부합하는 최첨단 스마트 캠퍼스 구현에 나섰다.

기존에 'Wi-Fi 4' 서비스를 제공해 왔으나 지난 4월부터 최첨단 차세대 규격인 'Wi-Fi 7 AP'를 도입했다.

1차로 공과대학과 인사례교양동, 56주년기념관, 계의돈기념관, 탈메이지기념관 등과 기숙사에 180여 대의 루커스 Wi-Fi 7를 설치했으며, 연차적으로 인프라 구축을 완료할 예정이다.

기존의 무선 인터넷 환경은 느린 접속 속도는 물론 접속 불가 지역이 다수 발생하는 등 원활한 서비스 지원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더욱이 건물 복도를 중심으로 설치되다 보니 실제 사용량이 많은 강의실이나 휴게 공간에서 무선 인터넷 접속 속도가 불안정하고 느렸다.



한남대는 모바일 시대에 부합하는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고용량의 멀티미디어 콘텐츠 접근을 위해 고액의 비용을 투입해 최신 기술을 도입하게 됐다.

이번 Wi-Fi 7 도입으로 학생들은 밀집한 환경에서도 고해상도 학습 콘텐츠를 화질 저하 없이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사각지대 없이 무선 인터넷의 빠르고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해졌다. 또, 인프라 통합 관리를 통해 네트워크 장애 및 복구 시간을 현저히 줄일 수 있으며, 네트워크 장애로 인한 불편이 최소화될 전망이다.

이승철 한남대 총장은 “국내 대학 최초의 최첨단 무선 인터넷 설치를 비롯한 다양한 학생 편의시설 구축 등 학생들을 위한 교육 환경 개선 사업에 투자를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며 “스마트 캠퍼스 구축, 시대 변화에 맞는 과감한 투자를 통해 학생들의 학업 환경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Wi-Fi 7 AP



한남대 베트남 유학생 성경공부 최초 시행

한남대학교가 기독교 정신을 계승하고
신앙 인재 배출을 위한 프로젝트로 베트남 유학생을 위한
성경 공부를 시행해 주목을 받고 있다.

한남대는 지난 4월 10일부터
매주 목요일 2025년 1학기 베트남 유학생
성경 공부를 실시했으며,
베트남 학부생 23명이 참여했다.

최원식 전임교목이 성경공부를 인도하며
사회봉사인성센터 타고 장학조교가
통역을 맡아 매주 성경공부를 통한
복음을 선포하고 있다.

베트남은 오랜 전쟁과 공산정권의 통제 속에서
기독교 정착에 많은 어려움을 겪는 국가 중 하나로
미국 오픈도어스(Open Doors)가 발표한
기독교 박해 국가 18위로
중국보다 더 높은 순위를 기록하고 있다.

한남대는 기독교에 대해
접촉하기 어려운 환경에서 자라온 학생들에게
베트남어 성경을 통해 쉽게 성경을 가르치면서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있다.

한남대는 성경공부 참여학생들에게
사회봉사인성센터 '사제동행' 프로그램
(양화진선교사 묘원 및 선유도 탐방)
참석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우수 수강 학생에게 장학금 지급,
동계 해외봉사 참가 특전을 부여한다.

베트남 학생들은 접하기 어려운 성경에 대해
배울 수 있는 기회라며 높은 호응을 보이고 있다.

한남대 교목실 관계자는
“한남대학교 내에 베트남 유학생들의 수가
급증하고 있어 유학생들에게도
성경과 기독교에 대한
기회 제공의 필요성이 제기됐다”며
“기독교를 처음 접한 학생들이 성경을 배우며
많은 흥미를 갖고 신앙을 받아들이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베트남 학생들과 함께 성경공부를 하고 있다.



졸업생 학부모의 '감동의 선물'



“아들이 좋은 직장에 취직도 잘 됐고,
그동안 우리 아이를 훌륭히 길러주신 학교에 너무 감사했습니다”

한남대학교 졸업생 학부모가 조심스레 전달한 ‘작은 봉투’가 큰 감동을 선물했다.

2025년 상반기 졸업식을 앞둔 어느 날 한 중년여성이 한남대 본관을 찾아 두리번거렸다. 대학 행정 사무실을 방문한 중년 여성은 한남대 졸업생의 학부모라며 ‘아주 적은 금액이지만 기부하고 싶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라고 수줍게 의사를 표했다.

자녀와 본인의 신분조차 밝히기를 꺼렸던 학부모는 조심스레 두툼한 봉투를 꺼내 학교 측에 전달했다. 현금인출기 봉투 속에는 500만 원의 현금이 들어있었다.

그녀는 “우리 아들이 이번에 취업이 잘 되었다. 생각해 보니 한남대가 지금껏 우리 아이를 훌륭하게 잘 길러줘서 무사히 졸업하고 취업까지 할 수 있었던 것 같다”라며, “자취했던 방의 보증금을 받은 돈인데 약소하지만, 학교에 전액 기부하고 싶다”라고 말했다.

본가가 인천인 학부모는 종종 아들의 자취방을 찾아 반찬도 넣어주고 청소나 빨래를 해주는 등 뒷바라지했다. 지난 4년간의 추억을 회상하며 끝내 눈물을 보이던 학부모는 대학 측에 깊은 감사를 표했다.



그녀는 “기부금 영수증도 원치 않고, 외부에도 전혀 알리고 싶지 않다.”라며 끝내 신원을 밝히지 않았다.

학부모는 순수하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었고, 앞으로 형편이 더 나아지면 지속적으로 아들의 모교에 기부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한남대 이승철 총장은 “학부모님의 이러한 선행은 학생들을 잘 가르치기 위해 대학이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할지 한남대 구성원에게 주신 큰 메시지인 만큼 더욱 성실히 학생들을 좋은 인재로 키워낼 것”이라며 “보내주신 발전 기금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 뜻깊게 사용하겠다”라고 말했다.

발전기금 기탁 현황



(주)글로벌교육원 장재갑 대표 한남대 발전기금 기탁

외국어 위탁교육 전문기업 (주)글로벌교육원 장재갑 대표가 한남대학교에 발전기금을 기탁했다. 지난 4월 30일 오후 4시 본관 2층 총장접견실에서 장재갑 대표는 한남대 이승철 총장에게 발전기금 2000만원을 전달했다. (주)글로벌교육원은 전국 40여개 대학에서 외국어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외국어 위탁교육 전문기업으로 거꾸로 학습법 등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외국어 관련 전문업체다.



재교동문회 모교 발전기금 기탁

한남대학교를 졸업하고 모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동문 교수, 직원들이 뜻을 모아 대학발전과 재학생들을 위한 발전기금을 기탁했다. 지난 4월 7일 한남대 재교동문회(회장 신형근) 임원들은 이승철 총장에게 학교발전기금으로 사용해 달라며 1,000만 원을 전달했다. 재교동문회는 매년 십사일반 기금을 모아 후배들을 위한 발전기금을 기탁해오고 있으며, 지난 1991년부터 시작된 누적 금액이 1억 9785만 원에 이른다.



임춘식 명예교수 제자 위한 기부

한남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임춘식 명예교수가 제자들을 위한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다. 임춘식 명예교수는 지난 4월 이승철 한남대 총장에게 스포츠밴드 300개(420만원 상당)와 발전기금 1580만원 등 총 2000만원을 전달했다. 임 교수의 누적 발전기금은 5000여만원에 이른다. 이번 발전기금 기탁은 지난 2월 '제15회 지구문 학상' 수상자로 선정된 기념으로 진행했으며, 발전기금 1580만원은 학생들의 아침밥 한 끼를 위한 '천원의 아침밥' 비용으로 지정기탁했다.



대학발전기금 평단

(재)하나금융축구단	(주)나노하이테크(김병순)	(주)드론다비전	(주)메타뱅크
(주)바이오피에스	(주)소프트버스	(주)스카이텍	(주)에이앤지테크(김경훈)
(주)에이치비엠바이음	(주)엠비아이이	(주)포항스틸러스	(주)한검인스페이스
KB국민카드	강태현(장순옥)노블하우스	국민은행 용전동지점	극동건설(주)
(주)위코미(김운중)	대보건설(주)	대전도시공사	동강추어탕장아구이
둔산전산세무회계직업전문학교	디자인 세연	릴리안 프린스(Lillian C. Prince)	마미하우스(김은숙)
맥앤웍(김수우)	명륜진시갈비 한남대점	모네타 프린스(Moneta S. Prince)	남도해물탕(변수현)
부전전자 주식회사	삼성스마일안과의원	새로남교회(오정호)	새로남커피숍(오정호)
서울북어전문(강성기)	소라피리협동조합(이은하)	송가육회(이상호)	쇼트케이프 주식회사
신현준건축사무소(신현준)	쓰촨&홍콩반점	오늘한방병원	유엔아이문화정보
재단법인 수원에프씨	정통 시원한90	어궁터(조신자)	주식회사 다온아이앤씨
주식회사 두레상사(김형식)	주식회사 시스너	주식회사 씨앗필름	주식회사 제이오엔터테인먼트 코리아
주식회사 코엠이노베이션	주식회사 터	주식회사 패리티	쥬방집
최윤정(이미정)	킴스	풍년삼계탕	필립로즈
학군단(60기)	학군단(61기)	학군단(62기)	한남대학교 건축과 동문회
학제신학대학원 교회지도자과정 총동문회	한남대학교 ROTC 총동문회	한남대학교 경영대학원 총동문회 발전기금위원회	
한남대학교회	한남플라워	한남하이텍	한샘회
해사디자인스튜디오	현대로템 주식회사	해성옥	황해면옥
효안과	강인호	강전의	강희선
고상범	고석보	공인영	곽건홍
곽성열	곽은희	구정화	권선영
김홍섭	김유빈	김민석	김상미
김서연	김석수	김선민	김수미
김재경	김종운	김종혁	김주미
김예지	김유진	김윤희	김태동
김진희	김철회	김태용	박성희
박완용	박우신	배의정	배정열
변봉규	변지현	서미선	서민철
서유빈	서하늘	서해빈	송희석
송환수	송의진	송주영	송희석
안태원	양주희	양진선	양희태
윤동섭	윤성국	윤연수	은 웅
이예진	이용재	이용철	이용택
이태주	이한주	이혜린	임종석
정성은	정윤택	정치영	정향재
주연욱	최기람	최수인	최예담
허인욱	홍연경	황진영	황철호